

2025. 5. 9. — 2025. 7. 20.

마교

An abstract graphic featuring overlapping, semi-transparent geometric shapes in shades of blue and yellow. The shapes include circles, squares, and rectangles, creating a layered, architectural effect. The background is a solid, vibrant blue.

An abstract graphic featuring a solid blue background. Overlaid on this background are several large, three-dimensional geometric shapes in a mustard yellow color. These shapes include a large ring-like form on the left, a tall vertical rectangular prism in the center, and a large L-shaped block on the right. The lighting creates soft shadows, giving the shapes a sense of depth and volume.

quero



《맑고 투명하고 깨어 있는》은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소장품 중에서 엄선된 스페인 작가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한국 예술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서울의 가장 오래된 기관 중 하나인 아트선재센터에서 5월에 개최되는 본 전시는 한국과 스페인, 두 국가와 두 지역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닌 특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나라는 모두 반도 국가로, 자본주의의 부상에 따라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으며, 농촌과 자연과의 연대가 시급합니다.

스페인 작가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은 두 예술가 공동체가 관계를 맺으며 서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예술을 창조하는 방법들을 나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대신, 공통점을 살펴봄으로써 근현대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인간, 비인간, 그리고 지구가 겪어온 전 지구적인 생태적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고통에 대한 인식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과의 연대감을 높이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지난 20년 동안 작품을 선보인 현대미술 작가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예술적 실천을 해석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작가에게 시간은 인간의 생물학적 시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생애로 측정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수명만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술과 작가는 우리가 시간의 질감을 다층적이고 섬세하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왔습니다. 한 국가를 내전으로 분단시킨 역사와 트라우마가, 인간처럼 말하거나 쓰지 못하는 바다와 산의 시간과 어떻게 얹힐 수 있을까요? 이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사와는 다른 민속과 구술 전통에 관심을 갖습니다. 민속은 사람들이 보존해 온 집단적 기술의 한 형태로, 고대의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연결하는 다양한 정신적 이미지와 감정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일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구는 비인간적인 지능을 구별하고, 자연을 우리 자신으로 인식하며,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을 허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허구는 시적 상상력을 펼칠 여지를 만들고, 추측을 예술적 실천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이어주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허구를 통해 자연의 출현은 물론, 토착민과 토착 문화의 호소력, 그 가치와 정당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 전시의 참여 작가들은 모두 시간, 구술 전통, 그리고 허구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전시를 기획하면서 이러한 특성이 한국 예술계에서도 만연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일무이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합과 결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찾기 위해 필요한 일체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긴 해안선을 가진 반도의 일부분이며, 해안과 문화의 오랜 연결성, 그리고 바다를 착취해 온 긴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기적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으로 지리적으로 나뉘어진 식민지적 분열을 넘어, 두 나라 간에는 많은 공통된 역사가 존재합니다. 본 전시가 작가와 작품을 연결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라는 경계와 고정된 문화적 틀을 넘어 예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 제목 ‘맑고 투명하고 깨어 있는’은 변하지 않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듯 문화를 인식해야 하는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간단히 말해, 문화 덕분에 세상은 인간에게 열려 있으며, 다른 어떤 생물의 지혜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형상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다.” 인류학자 팀 잉골드가 그의 저서 『실재를 상상하기』에서 한 말은 참여 작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요약합니다. 바로 답을 찾기 위해 마음의 길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을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는 우리가 즉흥적으로 새로운 관계 맺는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내가 여덟 살이었을 때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여러 겹의 분홍색 실크 위로 꽃과 새가 수놓아진 정교한 드레스였습니다. 그녀의 머리 역시 아름다운 장신구로 꾸며져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도자기처럼 보이는 소재였습니다. 선생님이 입고 계신 옷이 바로 한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랑의 여동생이라서 이런 차림으로 서울에서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부모님께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이해 가능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마 스페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도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스페인 작가들이 반도에 대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전시를 항상 기획하고 싶었습니다.

지도를 읽는 것은 때때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바다와 주변 자연은 수세기 동안 제국의 권력과 곡물 생산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후 자본주의로 인해 영토는 무모하고 급격하게 착취의 활동지로 변하며, 해안과 땅은 어업과 기타 산업의 생산지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지도에서는 아름답고 명백해 보이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불투명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화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물과 바람, 새에 대한 우려를 도시의 노동자들이 매일 겪는 부담과 더 밀접하게 연결 짓는 문화적, 예술적 관행을 만들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 혹은 수 세기가 걸렸습니다. 자연은 너무 오랫동안 부재했기 때문에,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을 깨닫고, 이를 다시 연결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듯했습니다. 2세기 넘게 스페인의 도시들은 농장을 떠난 농민들로 활력을 얻어왔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시민이 되는 것보다, 자신의 뿌리를 잊고 사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땅으로 돌아가 자연을 존중하고 기쁨으로 대하는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광산, 산업, 급속한 건설, 관광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 본래의 자연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작가와 예술은 토양, 나무, 물 등의 소재를 통해 조형 언어를 형성하고, 들판과 함께 새로운 삶의 철학을 만들어 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은 점차, 개념주의의 가장 높은 형태는 예술이 도시의 한계와 제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만들어지고 전시될 수 있는 예술, 광산 지역의 훼손된 바위와 대화를 시도하는 예술, 땅을 해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끌어내며 인간과 비인간의 이익을 함께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는 예술 말입니다. 그 후 자연은

성별 등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자 집, 나아가 학교가 되었습니다. 자연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정신 상태와 정신적 고통, 정신 건강을 치유하고 돌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은 또한 기술이 단순히 인공적일 뿐만 아니라 유기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지능은 예술 작품, 책, 이론, 과학을 통해 숲과 자연으로부터 태어나고 발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은 복잡성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모델은 스튜디오나 학계가 아닌 실제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많은 변화와 놀라움이 우리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전시의 참여 작가 모두 TBA21 컬렉션에 속해 있습니다. TBA21은 문화예술 지원 재단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의 커미션을 진행하고, 기후변화와 평화와 관련된 예술의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화와 자연은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공존이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거의 모든 작가는 '재생'을 지향하는 같은 세대에 속합니다. 여기서 재생이란, 생명에 생명을 되돌려주고, 공동체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고유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돌보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존중의 가치를 되살리고,

탐욕에 대한 깊은 비판을 담고 있는 재생입니다.

20세기 문학에서 자연은 깊은 감정적 의미, 때로는 비극적인 의미까지 지닙니다. 예를 들어,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작품에서 자연, 특히 숲은 상징적이고 때때로 신비로운 역할을 합니다. 숲은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운명과 해방의 공간으로 등장하며, 사랑과 폭력이 함께 펼쳐지는 배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나 마리아 마투트의 작품에서도 자연과 아이들은 중심적인 주제이며, 그녀의 작품 속 숲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고립을 가능하게 하고 고통을 침묵 속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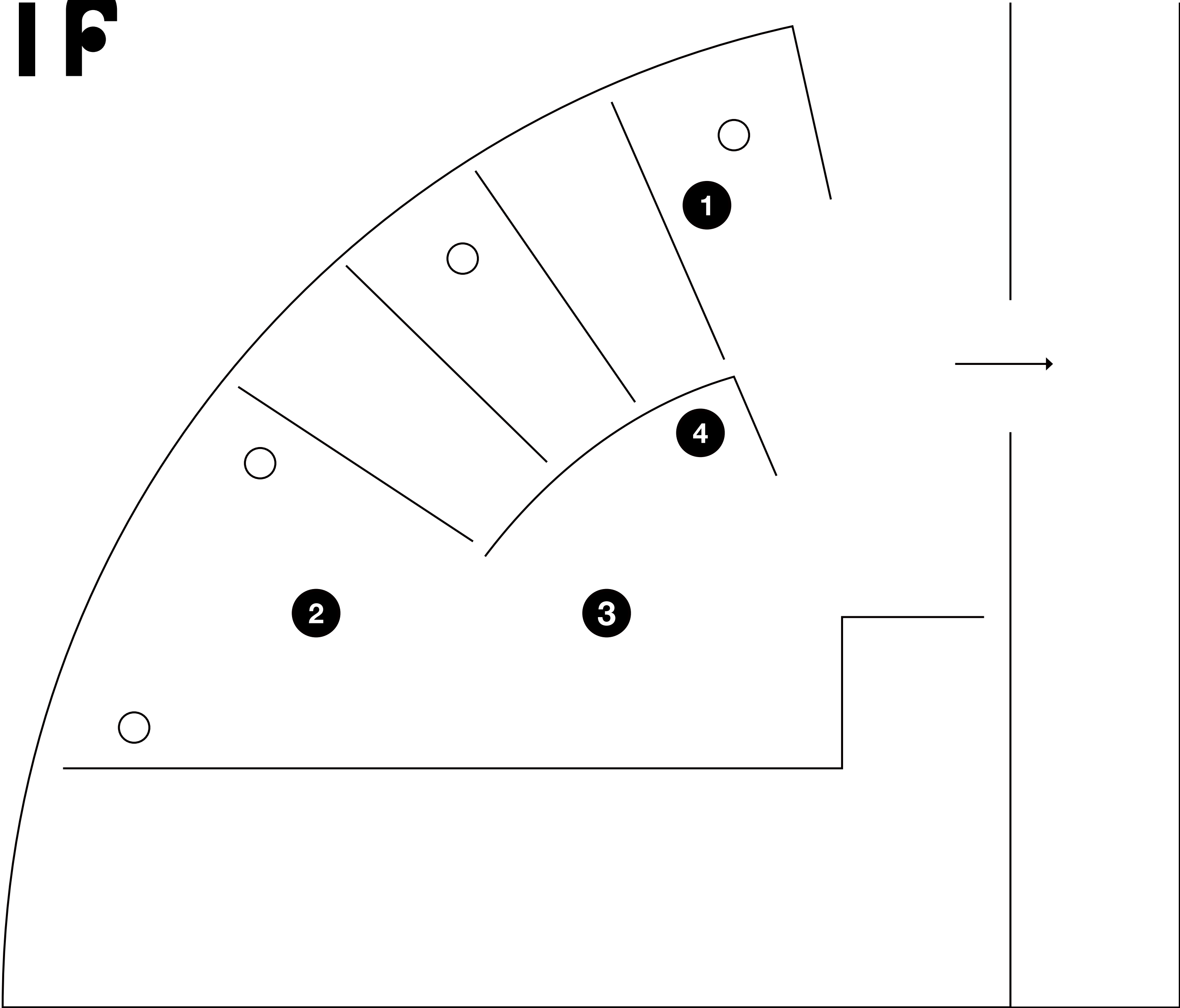
도시 생활에 대한 성찰—자본주의의 거대한 압박, 끝없는 노동 시간, 오염, 그리고 농촌 생활과 이전 세대와의 점점 더 커져가는 단절—은 작가들이 자연을 단순한 주제나 상징적 장소가 아닌, 정치적 언어로서 되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무, 식물, 자수, 도자기, 점토와 같이 산업화로 남겨진 재료들의 정치적 의미는 이제 자연에 대한 존중과 광산 채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원 개발 산업의 영향을 받은 농촌의 행위성을 대변하는 새롭고 강력한 생태-사회적 의식이 태어났습니다. 광업은 역사적으로 스페인에서 주요한 경제적, 문화적 힘을 발휘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도 다뤄지는 우엘바(안달루시아, 스페인)에 위치한

리오 틴토 광산은 5,000년 이상 활발히 운영되어 온 곳으로, 가장 오래된 광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점토를 활용한 전통의 부활은 지구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스페인에서 도예와 도자기는 단순한 공예가 아니라, 정체성, 영성, 그리고 지역 유산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갈된 바다 또한 주목을 요합니다. 스페인은 대서양, 지중해, 그리고 비스카이 만을 따라 펼쳐진 광활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수세기 동안 독특한 지역적 어업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 어업, 남획, 수온 상승, 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화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상가들은 스페인 민족 정체성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종종 스페인이 국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공동의 신화를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가들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품을 통해 스페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지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문화적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같은 전통을 회복하려 하며, 공공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재생하는 도구로서 느림, 대화, 절제,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의미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공유된 삶의 방식만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대, 존엄성, 정의에 기초한 공유된
윤리적 서사와, 이러한 서사들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전통들과 어떻게 얹히는가입니다.

글. 추스 마르티네스



1. 다니엘 스티그만

망그라네, 〈∞〉, 2020
2. 테레사 솔라르 아부드,

〈터널 굴진기〉, 2021
3. 아순시온 몰리노스

고르도, 〈저 위에

강이 얼마나 많던가!〉,

2021
4. 아순시온 몰리노스

고르도, 〈짐작〉, 2021

다니엘 스티그만 망그라네(b. 1977)

1. 〈∞〉, 2020, 네 개의 크리스카 알루미늄 커튼, 알루미늄 레일, 분체 도장된 강철 프레임 설치, 450x1455x780cm, 가변 설치,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컬렉션

다니엘 스티그만 망그라네는 자연과 문화, 유기적 형태와 기하학적 구조, 감각과 지각의 경계를 탐구하며,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비생명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불완전한 무한)〉에서 망그라네는 화려한 알루미늄 체인으로 형성된 커튼을 제시하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길고 터널 같은 통로로 초대한다. 관람객은 체인을 밀어내며 금속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지나가거나 불규칙한 형상의 틈 사이로 조용히 걸어갈 수 있다. 작업의 제목인 ‘∞’는 작업이 불완전한 무한을 의미하는 수학적 기호로, 충만함과 공허함, 질서와 혼란, 그리고 전환의 중간 상태 사이에서 작동함을 암시한다. 작가는 우리의 것이 아닌 공간에 들어가고, 거주하며, 상호작용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테레사 솔라르 아부드(b. 1985)

2. 〈터널 굴진기〉, 2021, 내화 점토, 레진, 페인트, 바니쉬, 금속 세라믹 손잡이, 160x217x80cm,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컬렉션

테레사 솔라르 아부드의 작업은 생물과 기계, 신화와 물질의 사이를 넘나든다. 솔라르의 작업에서 핵심 재료인 세라믹은 지층과의 물리적이며 문화적인 뒤얽힘에 대한 은유이자, 단열이라는 특징을 통해 피난처, 변형, 중첩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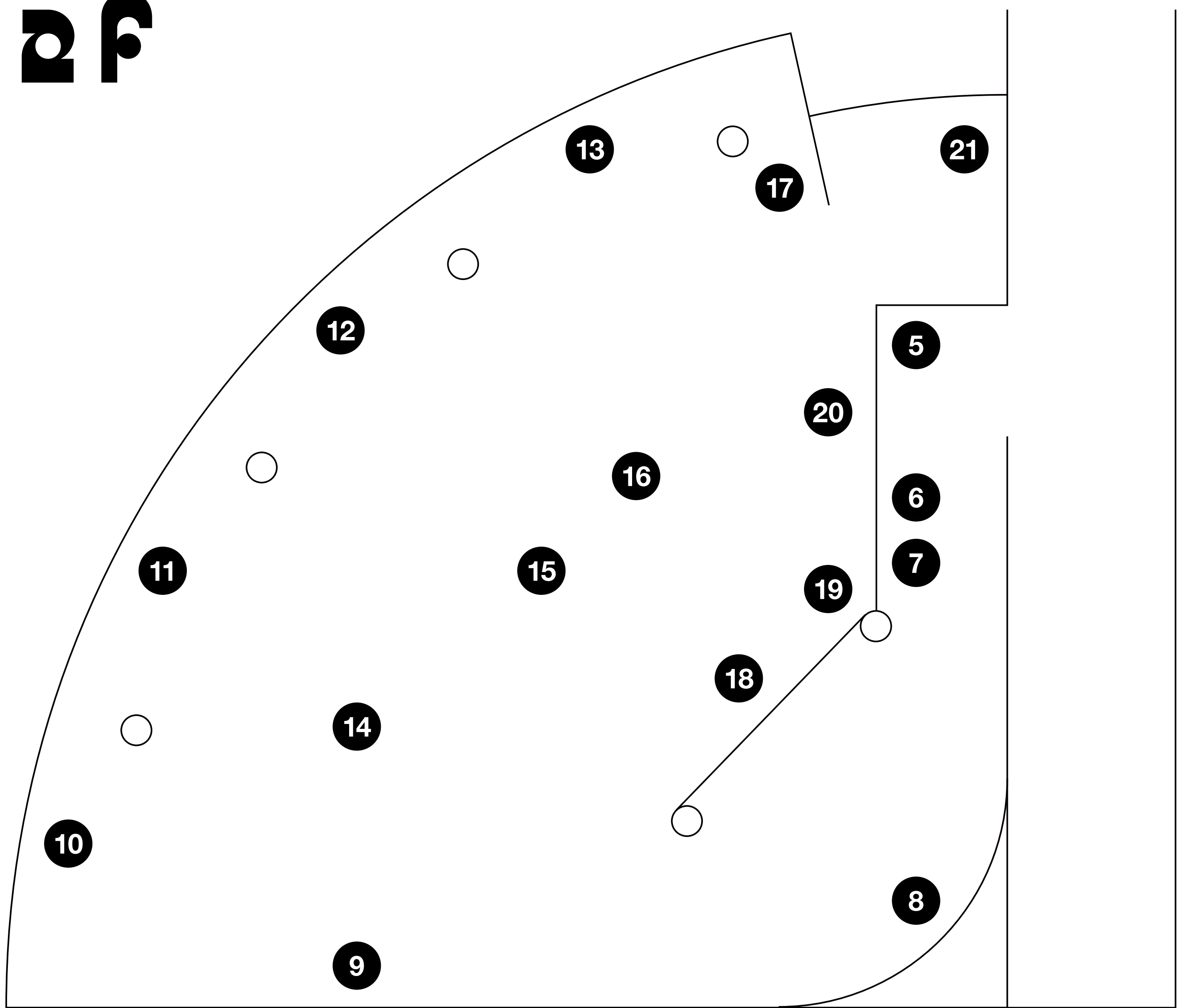
조개껍질을 연상시키는 <도피의 형상들>과 지층을 뚫는 산업 장비인 터널 굴착기의 형식적 언어를 차용해 만들어진 <터널 굴진기>는 작가만의 조형 언어로 지질학적 탐사기이자 신화적인 유기체처럼 보이는 하이브리드 생물체를 재탄생시켰다.

아순시온 몰리노스 고르도(b. 1979)

3. <저 위에 강이 얼마나 많던가!>, 2021, 유약 처리된 세라믹, 철, 188x65x65cm, 170.3x52x52cm, 188x65x65cm,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컬렉션
4. <짐작>, 2021,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9분 38초, 영상: 소니아 푸에체 | 사운드: 알베르토 칼라사레, st_age를 위해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커미션

아순시온 몰리노스 고르도는 인류학, 사회학, 문화연구 등의 학문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대 농촌 사회와 농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를 탐구한다.

스페인어로 ‘예측하다’, ‘느끼다’는 의미인 ‘barruntar’에서 기인한 영상 작품 〈알아차림 (Barruntaremos)〉은 전통적인 생태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감지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탐구한다. 영상은 스페인 세고비아 출신 목동 페드로 산스 모레노의 나레이션을 통해 스페인, 중남미, 아프리카의 일부에서 여전히 행해지는 고대 날씨 예보인 카바뉴엘라스(Cabañuelas)에 대해 다루며 전통 지식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실질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조각 작품 〈저 위에 강이 얼마나 많던가!〉는 도예 장인들과 협업하여 만든 세라믹 꿀라주로 지중해 지역에서 오랜 세월 물을 나르고 나누고 기념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항아리, 주전자, 물병, 술잔 등을 모티브로 삼았다. 물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다양한 도기들을 활용함으로써 오늘날의 물 공급 시스템에 의문을 던진다.



5. 이레네 데 안드레스,
〈섬. 강바닥을 따라〉,
2023

6. 크리스티나 루카스,
〈터프팅: 한국과 일본
1953〉, 2025

7. 크리스티나 루카스,
〈터프팅: 스페인과
리프 1939〉, 2017

8. 클라우디아 파제스
라발, 〈저수조와
집단〉, 2024

9. 레히나 데 미겔,
〈코나마라에서의 삶〉,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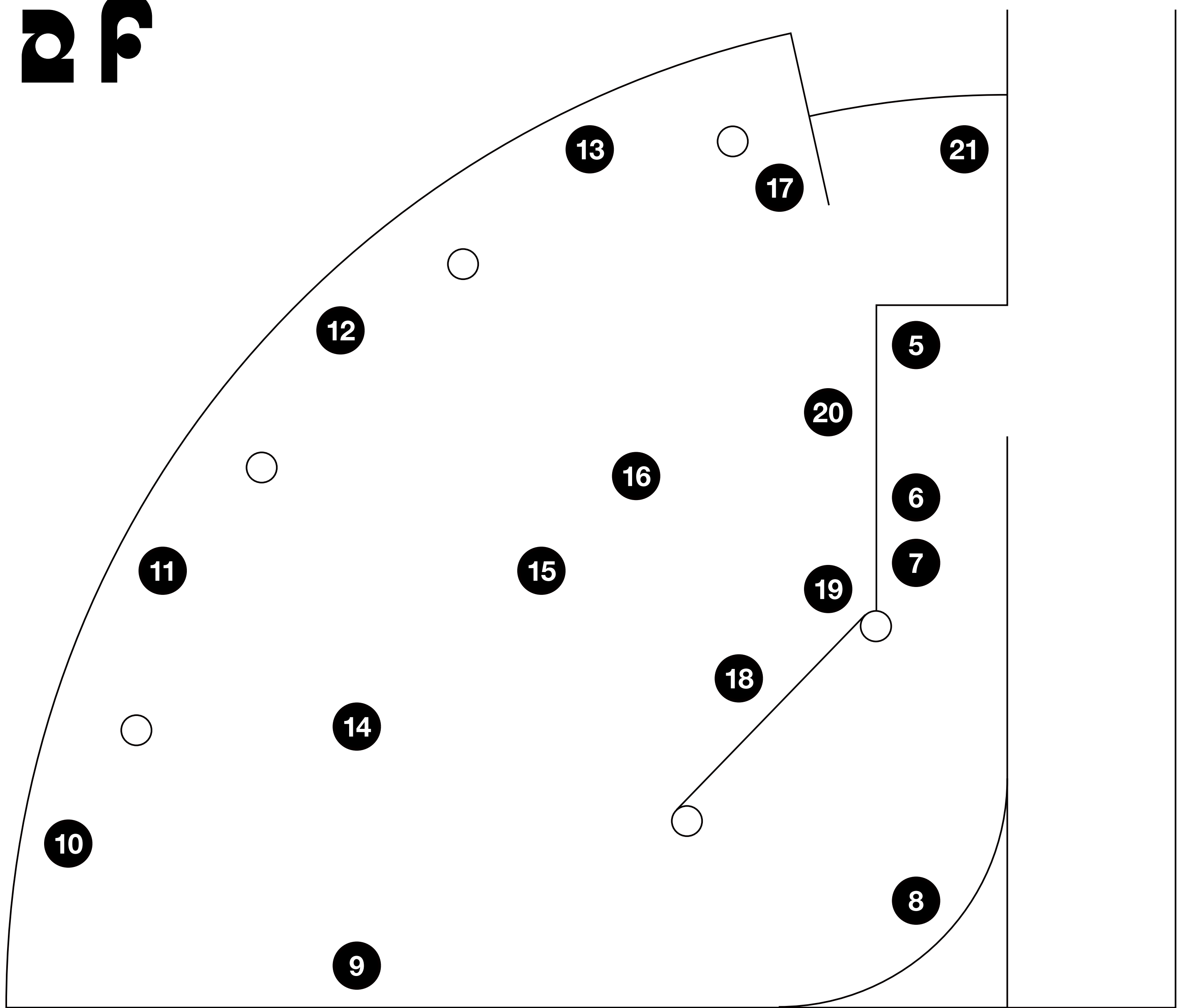
10. 디에고 델라스, 〈몸의
등불〉, 2025

11. 디에고 델라스,
〈거꾸로 된 카드〉,
2024

12. 디에고 델라스,
〈녹석〉, 2025,

13. 디에고 델라스, 〈나는
그 노래를 듣는다〉,
2024

14. 테레사 솔라르
아부드, 〈스케치북
06〉, 2018



15. 테레사 솔라르
아부드, 〈모든 눈이
당신을 응시한다〉,
2025

16. 테레사 솔라르 아부드,
〈부력 선〉, 2018

17. 테레사 솔라르
아부드, 〈도피의
형상들〉, 2020

18. 벨렌 로드리게스,
〈농부의 재킷〉, 2024

19. 벨렌 로드리게스,
〈혁명적 의상 II〉,
2024

20. 알바로 우르바노,
〈짧은 인생 (그라나다,
그라나다)〉, 2023

21. 레히나 데 미겔,
〈네키아: 영화의 강〉,
2022

이레네 데 안드레스(b. 1986)

5. 〈섬. 강바닥을 따라〉, 2023, 2-채널 비디오 설치, 컬러, 흑백, 사운드 설치, 19분 46초,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에서 st_age를
위해 커미션 및 제작, 마타데로 예술 레지던시
센터 지원

이레네 데 안드레스는 스페인 여가, 여행, 관광
산업의 역사와 그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탐구하며,
특히 활성화된 관광 산업과 소비문화가 자연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을 던진다.

〈섬. 강바닥을 따라〉는 스페인 건축가 루이스
구티에레즈 소토가 설계한 1930년대 강변 복합
수영장 ‘라 이슬라(La Isla)’의 이야기를 통해
마드리드의 잊힌 장소를 다시 살펴보는 영상
작업이다. 여객선처럼 생겨 마드리드의 주요 하천인
만사나레스 강에 정박해 있던 라 이슬라는, 시민들의
여가와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였지만, 마드리드가
확장되며 강은 점차 오염되었고 고속도로 아래로
감춰졌다. 최근의 도시 생태 복원 노력으로 강의
흐름과 생물다양성이 회복되면서 자연과 사람 모두
다시금 강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작가는 영상
작업을 통해 도시의 변화, 잊힌 풍경, 그리고 물이
지닌 힘에 대한 성찰을 제안한다.

크리스티나 루카스(b. 1973)

6. 〈터프팅: 한국과 일본 1953〉, 2025, 128x95cm,
기계 자수 텍스타일, 모노타이프,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커미션 및
제작
7. 〈터프팅: 스페인과 리프 1939〉, 2017, 기계 자수
텍스타일, 모노타이프, 128x95cm

크리스티나 루카스의 〈터프팅〉 시리즈는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 프로젝트 ‘끝없는 번개’의 리서치에서 출발한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시민 사상자의 수를 기록한 1912년 이래로 민간인 공습의 파괴적 영향을 탐구한다. 〈터프팅〉은 자수천으로 구성된 일련의 지도 작업으로, 각 검은 점은 폭격이 있었던 장소를 나타낸다. 이 자수 지도는 잊히거나 간과된 폭력의 행위들을 서로 연결하며, 이로 인해 사람과 환경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드러낸다.

이베리아반도와 한반도에 대한 두 점의 자수 지도는 스페인 내전과 한국전쟁을 상기시킨다. 두 전쟁은 모두 냉전 이념 대립의 무대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깊은 유산을 남겼다. 루카스는 데이터, 기억, 수공예를 결합해 역사 서술의 선택적 성격을 비판하며, 국제 인도법의 지속적인 무시에도 맞선다. 그녀의 지도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인과 그들이 속한 환경이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클라우디아 파제스 라발(b. 1990)

8. 〈저수조와 집단〉, 202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4분 58초, 매니페스타 15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타나 커미션, 암모도, 인덱스 - 스웨덴 현대 미술 재단 지원, MACBA, IVAM, La Caldera, Hangar 협력,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컬렉션

클라우디아 파제스 라발은 시각예술가이자 퍼포머로, 언어, 움직임, 음악을 중심으로 한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사회적 위계, 소속감, 몸, 욕망 등의 주제를 탐구한다.

〈저수조와 집단〉은 스페인 사티바에 있는 로마 시대와 이슬람 시기의 두 고대 저수조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수 세기 동안의 그래피티가 겹겹이 쌓인 이 건축적 장소는, 단순히 물을 저장하는 것만이 아닌 언어, 기억, 권력을 담는 용기로서 영상의 배경이자 주제로 등장한다. 파제스는 몸짓, 소리, 발화된 텍스트를 통해 시간의 흔적이 어떻게 직선적이지 않고 층을 이루며 몸과 장소, 언어 위에 침전되는지를 탐색한다. 작업은 360도 카메라를 몸에 부착해 촬영되었으며, 관람자의 시선을 분절시키고 전통적 서술과 관점의 위계를 해체한다. 몰입적이고 감각적인 이 환경 속에서 리듬, 동작, 목소리는 가뭄, 착취, 물의 상품화라는 주제와 교차한다. 〈저수조와 집단〉은 전 지구적 물 분쟁, 기억, 주권의 문제와 공명하며,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견디는 것을 통해

어떤 저항과 기억의 형태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레히나 데 미겔(b. 1977)

9. 〈코나마라에서의 삶〉, 2025, 벽화 및 3D
프린트 조각 8점, 각: 20x15x15cm, 전체:
245x450x15cm,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커미션 및 제작

레히나 데 미겔은 콜롬비아 정글부터 리오 틴토의
채굴 분지에 이르기까지 트라우마와 자원 추출에
대해 논하는 리서치 기반의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트선재센터에 새로 선보이는 벽화

〈코나마라에서의 삶〉에서 데 미겔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로 시선을 돌리며, 우주로 확장되는 채굴
주의의 경계를 탐색하고, 식민주의 유산의 폭력성이
오늘날의 기술-자본주의적 우주 탐사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디에고 델라스(b. 1983)

10. 〈몸의 등불〉, 2025, 캔버스에 유화,
홍차·와인·아마씨유로 칠한 작가 제작 프레임,
252x197x4cm,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컬렉션
11. 〈거꾸로 된 카드〉, 2024, 캔버스에 유화,
알루미늄 프레임, 250x195x4cm
12. 〈녹석〉, 2025, 캔버스에 유화,

홍차·와인·아마씨유로 칠한 작가 제작 프레임,
252x197x4cm,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컬렉션

13. 〈나는 그 노래를 듣는다〉, 2024, 캔버스에 유화,
알루미늄 프레임, 195x150x3.5cm

디에고 델라스의 작업은 집이라는 공간을 물리적
구조이자 개인적, 가족적, 집단적 기억을 담는
기억의 그릇으로 탐구한다. 스페인 카스티야의 농촌
지역에서 성장한 작가는 지역의 토속 건축, 가정의
의례, 그리고 미묘한 시간의 장벽을 상기시키는
이미지를 구축한다. 그의 회화 작업은 종종 재활용된
직물, 건축 자재, 그리고 수공예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기억과 물성이 교차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델라스는 이번 전시에 하나의 거대한 거처의
파편처럼 기능하는 네 점의 회화를 소개한다. 타로
카드 혹은 부적을 상기시키는 작품에 등장하는
패턴과 질감은 지중해의 전근대 가정 내 문화 및 농촌
생활에서 가져왔으며, 관람객의 해석을 요한다.

작품 제목은 카르멘 바로자(Carmen Baroja)가
저술한 에스파냐 푸에블로 박물관의 『부적 목록』에서
인용했다.

테레사 솔라르 아부드(b. 1985)

14. 〈스케치북 06〉, 2018, 작가의 책, 종이에 잉크 및
수채, 29x40cm
15. 〈모든 눈이 당신을 응시한다〉, 2025년, 1개,

청동, 금속, 잉크, 34x8.5x2cm(1개)

16. 〈부력 선〉, 2018, 합성 가죽 패브릭, 폼, 밧줄, 700x200x100cm, 바젤 예술 대학, 데어 탱크 커미션
17. 〈도피의 형상들〉, 2020, 구운 점토, 레진, 페인트, 잉크, 33x70x40cm,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컬렉션

테레사 솔라르 아부드의 작업은 생물과 기계, 신화와 물질의 사이를 넘나든다. 솔라르의 작업에서 핵심 재료인 세라믹은 지층과의 물리적이며 문화적인 뒤얽힘에 대한 은유이자, 단열이라는 특징을 통해 피난처, 변형, 중첩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부력 선〉은 육지와 바다, 신화와 물질 사이를 부유하는 조각적 풍경이다. 전시장 중앙에는 살아있는 생물이자 상징적 존재로서 등장하는 고래 형상이 있으며, 주변에는 동물적 형상의 다채로운 조각들이 시계추처럼 매달려 있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허먼 멜빌의 『모비 딕』과 같은 문학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업은, 수면 아래 감춰진 신화와 깊은 생태적 의식을 암시한다. 조개껍질을 연상시키는 〈도피의 형상들〉은 작가만의 조형 언어로 지질학적 탐사기이자 신화적인 유기체처럼 보이는 하이브리드 생물체를 재탄생시켰다.

벨렌 로드리게스(b. 1981)

18. 〈농부의 재킷〉, 2024, C-프린트 사진 12점 시리즈, 각 32×48cm, 사진: ©미리암 모라
19. 〈혁명적 의상 II〉, 2024, 재활용 직물 의상, 140x55cm

벨렌 로드리게스는 회화와 조각, 설치, 텍스타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탐구하며, 색채와 형태의 추상화를 통해 감각적이고 시적인 작업을 선보인다.

〈농부의 재킷〉은 월페이퍼 작업 위로 손으로 제작한 의상과 12점의 사진 시리즈로 구성된 작업으로, 전통 섬유 관행, 기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작 방식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특히 재킷은 작가의 이전 작품에서 나온 천 조각들을 이어 붙여 만들었으며, 스페인 북부 바예스 파시에고스(Valles Pasiegos) 근처에서 채집한 참나무와 자작나무 등의 천연염료로 염색되었다. 각각의 천 조각은 고유한 이야기를 품고,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되어 느낌, 정성, 시간의 흐름을 구현한다. 사진 시리즈는 과정, 재료의 물성, 그리고 작업의 촉각적인 면을 드러내며 제작의 제스처를 기록하고 확장한다. 〈농부의 재킷〉은 전통 지식을 복원하고 수작업을 기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풍경에 예술이 어떻게 나타나고 다시 환원될 수 있는지 상상하는 로드리게스의 더 넓은 지향점을 전달한다.

알바로 우르바노(b. 1983)

20. 〈짧은 인생(그라나다, 그라나다)〉, 2023,
금속, 콘크리트 및 페인트, 가변 크기,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컬렉션

알바로 우르바노의 작업은 허구와 기억의 경계를 흐리게 하며 건축, 시, 그리고 개인적인 울림이 중첩되는 공간으로 관객을 초청한다.

〈짧은 인생(그라나다, 그라나다)〉에서 우르바노는 멕시코의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과 스페인의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시적인 만남을 상상한다. 이 작업은 바라간이 안달루시아와 무어 건축의 영향을 받아 1929년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디자인한 집인 까사 프랑코를 중심으로, 문화적인 형태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뿌리 내리는 방식을 반영한다. 상상된 만남은 공유된 상징적 언어를 통해 더 깊은 공명을 얻는다. ‘그라나다’는 가르시아 로르카의 고향인 스페인 남부 도시(Granada)를 의미하는 동시에 스페인어로 ‘석류’를 뜻한다. 작업의 중심 모티브로 등장하는 석류는 로르카의 문학 세계와 바라간의 건축적 감성을 연결한다. 우르바노는 상징과 소재의 미묘한 시나리오를 통해 공간의 정서적 감동, 먼 역사들 사이의 메아리, 그리고 장소의 상상적 가능성에 대해 탐구한다.

레히나 데 미겔(b. 1977)

21. 〈네키아: 영화의 강〉, 2022,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74분,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커미션, 라카이사 재단 창작 지원 프로그램 및 보틴 재단 지원,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컬렉션

레히나 데 미겔은 콜롬비아 정글부터 리오 틴토의 채굴 분지에 이르기까지 트라우마와 자원 추출에 대해 논하는 리서치 기반의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네키아: 영화의 강〉는 피로 붉게 물든 강으로 형성된 스페인 남부 광산 지대 리오 틴토에 축적된 역사, 신화, 생태계를 탐색하는 영상이다. 데 미겔은 죽은 자와 대화하는 고대의 의식인 네키아(Nekya)와 스틱스강의 신화를 바탕으로, SF와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교차하며 리오 틴토를 지질학적 경관이자 식민적 폭력, 그리고 잊힌 저항 운동의 공간으로 재조명한다.

연계 프로그램

2025. 5. 10. (토)

14:00-14:10 인사말

- 김선정(아트선재센터 예술감독),
기예르모 끼르빠뜨릭(주한 스페인 대사),
로사 페레(TBA21 공동 디렉터)

14:10-14:40 강연

- 추스 마르티네스(바젤 FHNW 아트 앤 디자인
아카데미 아트 젠더 네이처 학장, 제36회 류블랴나
그래픽 아트 비엔날레 아티스틱 디렉터)

14:45-16:00 라운드 테이블

〈기상! 혹은 출근하는 방법〉

- 참여작가: 벨렌 로드리게스, 아순시온 몰리노스
고르도, 디에고 델라스, 다니엘 스티그만 망그라네
- 모더레이터: 추스 마르티네스

2025. 5. 11. (일)

14:00-15:15 스크리닝

- 레히나 데 미겔, 〈네키아: 영화의 강〉

15:20-16:20 대화

- 참여작가: 레히나 데 미겔
- 모더레이터: 마리나 아비아 에스트라다
(TBA21 전시 및 퍼블릭 프로그램 디렉터)

16:30-17:30 퍼포먼스

- 클라우디아 파제스 라발, 〈쥐와 바퀴벌레〉

맑고 투명하고 깨어 있는

2025. 5. 9. – 2025. 7. 20.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 스페이스1

기획

추스 마르티네스 (바젤 FHNW
아트 앤 디자인 아카데미 아트
젠더 네이처 학장, 제36회
류블랴나 그래픽 아트 비엔날레
아티스틱 디렉터)

협력

김지나(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 프로젝트 디렉터)

진행

장유진(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 코디네이터)

주최

아트선재센터

공동주관

아트선재센터,
TBA21 티센보르네미사
아트 컨템포러리

협력

스페인 문화부,
스페인국가문화활동협회(AC/E),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
(AECID), 주한 스페인 대사관

운송 및 설치

다산아트

조명

문현성, 윤재일

그래픽 디자인

신덕호

사진

남서원

영상 제작

이의록

홍보

매그 피알 앤 이미지

번역

김지나

자막 번역

김세현, 장유진

도슨트 프로그램

김현미, 김윤지

맑고 투명하고 깨어 있는

2025. 5. 9. – 2025. 7. 20.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 스페이스1

TBA21

전시 및 퍼블릭 프로그램 디렉터

마리나 아비아 에스트라다

전시 및 퍼블릭 프로그램 진행

클라우디아 샤퍼-타브라우에

컬렉션 팀장

시모네 센탈

전시 레지스트라

루시아 테란 비아데로

홍보 및 파트너십 팀장

루도빅 아세마트

홍보 및 마케팅 책임

레티시아 G. 빌라메아

건축 및 전시 어시스턴트

클라라 알세다 로드리게스

전시 디자인 보조

클라라 알바레스 가르시아

전시 어시스턴트

마리아 델 마르 메디나 구슈

관람 안내

관람 시간

12:00-19:00(월요일 휴관)

입장료

10,000원(25세-64세)

7,000원(19세-24세, 65세 이상, 예술인패스 소지자)

5,000원(9세-18세)

무료(그 외 연령, 장애인, ICOM·CIMAM·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카드 소지자)

© 2025 아트선재센터.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T. 02 733 8949

F. 02 733 8377

W. www.artsonje.org